

지거국 인기 다시 치솟는다… 등록금 무상화 기대감 ‘톡톡’

〈지방 거점 국립대학교〉

정시 5.68대 1 경쟁률 5년 최고
수시 지원 28만명 넘어 5년 최대
인문·자연 내신 합격선 동반 상승
취업난·진학비 부담에 선택 변화
‘서울대 10개’도 2027 입시 변수

지방 거점 국립대학교(지거국)의 경쟁률과 합격선이 동반 상승하며 입시 지형에 변화 기류가 감돌고 있다. 취업난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원인으로 꼽히는 가운데, ‘서울대 10개 만들기 사업’과 지방 국립대 등록금 지원 정책이 새 변수로 떠오르면서 2027학년도 지원 양상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3일 종로학원에 따르면 9개 지거국(강원대·경북대·경상국립대·부산대·전남대·전북대·제주대·충남대·충북대)의 2026학년도 정시 평균 경쟁률은 5.68대 1로, 최근 5년 사이 가장 높았다. 지거국 정시 경쟁률은 ▲2022학년도 ‘4.67대 1’ ▲2023학년도 ‘4.69대 1’ ▲2024학년도 ‘4.58대 1’ ▲2025학년도 ‘4.88대 1’로 등락을 거듭하다 2026학년도 ‘5.68대 1’로 상승했다.



3일 종로학원에 따르면 9개 지거국의 2026학년도 정시 평균 경쟁률은 5.68대 1로 나타났다. /뉴스1

특히 정시 모집인원이 줄어드는 가운데 지원자는 전년보다 증가했다. 2022학년도 정시 모집 인원은 1만4167명에서 2026학년도 1만195명으로 줄었다. 반면 지원 인원은 2025학년도 5만5863명에서 2026학년도 5만7883명으로 2020명 늘었다.

2026학년도 수시 경쟁률은 ‘8.65대 1’

로, 최근 4년 중 가장 높은 수치다. ▲2022학년도 ‘8.92대 1’ 수시 경쟁률은 ▲2023학년도 ‘8.38대 1’ ▲2024학년도 ‘7.69대 1’로 하락세를 보이다 ▲2025학년도 ‘8.44대 1’ ▲2026학년도 ‘8.65대 1’로 2년 연속 올랐다.

수시 지원 인원은 2026학년도 28만252

명으로 최근 5년 중 가장 많았다. 2024학년도 23만4825명에서 2025학년도 26만7624명에 이어 2년 연속 증가했다.

지원자가 늘면서 내신 합격선도 높아졌다. 일반전형 최종등록자 70%컷을 분석한 결과, 인문계 평균 합격선은 ‘3.69등급’으로 집계됐다. ▲2022학년도 ‘3.75등급’ ▲2023학년도 ‘3.71등급’ ▲2024학년도 ‘3.91등급’ ▲2025학년도 ‘3.88등급’를 지나 최근 5년 사이 가장 높은 수준이다.

자연계 합격선은 ▲2022학년도 ‘3.80등급’ ▲2023학년도 ‘3.82등급’ ▲2024학년도 ‘3.86등급’으로 3년 연속 하락했지만, ▲2025학년도 ‘3.76등급’ ▲2026학년도에는 ‘3.58등급’으로 반등했다.

종로학원은 서울과 지방을 가리지 않는 취업난을 경쟁률·합격선 동반 상승의 원인으로 꼽았다. 무리하게 기회비용을 부담하면서까지 수도권 진입을 고수하던 입시 흐름이 일정 부분 전환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서울권 대학과 지거국 합격선이 겹치는 수험생층에서 지거국을 선택하는 경향이 예전보다 뚜렷해졌다는 설명도 나온다.

교육부의 지방 국립대 등록금 전액 지원 정책도 이런 흐름을 가속화할 변수로 지목했다. 종로학원은 정책이 본격화하면 지방권 학생들이 지거국, 국립대, 사립대 중 지거국으로 쏠리는 경향이 더 강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같은 지역 내 지거국과 국립대를 놓고 고민하는 수험생들 역시 지거국 선호가 높아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오는 7일부터 시작되는 2027학년도 수시 원서접수에서는 이 같은 변화가 실제 지원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국립대 등록금 무상화와 함께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에 따른 지원 대상 대학 선정도 수험생 선택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이사는 “특히 부산대·충남대·전남대 등 정책 지원 대상에 포함된 지거국을 중심으로 지원 양상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라며 “올해 수시가 향후 지거국 선호도 변화와 합격선 상승 여부를 가늠할 첫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김수정 기자

kcrystal@metroseoul.co.kr



metro

학폭 ‘처벌’보다 관계회복… 대화로 갈등 푼다

서울시교육청, 학폭 관계조정 확대
변호사 선임 사안도 대화로 조정
처벌보다 예방·관계회복에 무게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양측이 모두 법률대리인을 선임한 학교폭력 사안이 심의와 처벌 대신 대화를 통한 관계조정으로 해결되면서, 학교폭력 대응을 처벌 중심에서 예방과 관계 회복 중심으로 전환하려는 교육 현장의 시도가 주목받고 있다.

3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산하 북부교육지원청은 학교폭력 사건 발생 시 당사자 간 대화와 소통을 중재하는 ‘북부 마음이음 관계조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마음이음 관계조정 프로그램’은 학교폭력 사건을 처벌 중심으로 처리하는 데서 벗어나 예방과 관계조정을 통해 학생들의 일상 회복을 돕는 사업이다. 학교

폭력이 발생하면 관계조정 지원단이 현장에 투입돼 피해·가해 관련 학생이 서로의 입장을 듣고 대화할 수 있도록 중재한다.

최근 프로그램이 적용된 학교폭력 사안에서는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모두 법률대리인을 선임한 상태였지만, 관계조정 지원단의 중재를 거쳐 당사자 간 관계조정이 성사됐다. 참여 학생은 사후 만족도 조사에서 “상대 친구의 진심 어린 마음을 알게 되어 정말 좋았고 마음이 가벼워졌다”고 밝혔다.

북부교육지원청은 지난 3월부터 7월까지 5개월간 약 70건의 관계조정을 진행했다. 교육지원청에 따르면 이들 사안들은 당사자 간 대화와 합의를 거쳐 학교장 자체해결 또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 취소로 이어졌다.

북부교육지원청은 사안발생 이후의 조

정뿐 아니라 교실 내 초기 갈등 단계에서부터 관계조정이 가능하도록 교원 역량 강화에도 나선다.

오는 7일부터 11일까지 총 15시간 과정의 ‘2026 북부 교실 속 관계조정 역량강화 직무연수’를 운영한다. 지난 8월 자체 개발한 ‘북부 교실 속 관계조정 매뉴얼’을 활용해 공간적 경청과 사전·본 대화모임 실습, 약속이행문 작성 등 현장 중심으로 진행한다.

정동희 북부교육지원청 교육장은 “최근 늘어나는 학생 간 갈등 사안은 심의에 의한 처벌보다 관계의 회복과 마음의 성장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며 “마음이음 관계조정 프로그램을 활성화해 평화롭고 건강한 학교문화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이현진 기자 lhj@

용산고 80주년 음악회 동문·재학생 한무대

매년 후배 110여명 장학금 지원

100억원 규모의 장학금금을 조성해 매년 후배 110여명을 지원해 온 용산고 동문들이 개교 80주년을 맞아 재학생·교직원과 한 무대에 선다.

서울시교육청 산하 용산고등학교는 오는 9일 오후 7시 서울시교육청 대강당에서 ‘개교 80주년 기념 음악회’를 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

음악회에는 재학생과 동문, 교직원을 비롯해 서울교육가족과 지역주민 등이 참여한다. 개교 80주년을 기념하고 학교 구성원과 동문 간 교류를 위해 마련됐다.

용산고 동창회는 100억원 규모의 장학금금을 바탕으로 매년 재학생 110여명에게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다. 기숙생활관 운영비와 교육활동비 등도 지원하고 있다.

이번 공연에는 최근 용산 신청사로 이전한 서울시교육청 구성원들도 함께한다. 특히 신청사 부지에 있었던 옛 수도여고의 역사를 기념해 수도여고 동문합창단이 무대에 오른다.

출연진은 용산고 동문합창단과 산울림 멤버 김창훈, 강승원 KBS 음악감독, 성악가 정효식·최승원 등이다. 용산고 학생회와 교사, 서울 음악교사들도 공연에 참여한다. 진행은 김재원 전 KBS 아나운서가 맡는다.

김진효 용산고 교장은 “졸업 후에도 모교와 후배들의 성장을 꾸준히 지원해 온 동문들의 역할이 큰 힘이 돼 왔다”며 “선배의 지원이 후배의 성장으로 이어지고 후배들이 다시 다음 세대를 응원하는 전통을 이어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현진 기자

킨텍스, MICE 업계 최초 ‘AI 안전관리 인증’ 획득

AI·IoT 기반 위험요인 실시간 감지
전기차 화재·공간안전 기술도 실증

킨텍스가 인공지능(AI)과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안전관리 체계를 인정받아 마이스(MICE) 업계 최초로 도시재생안전협회의 ‘AI 안전관리 인증’을 획득했다.

킨텍스는 2일 AI 기반 시설·현장 안전관리와 위험요인 사전 감지, 재난·사고 대응체계 등을 평가받아 인증을 받았다고 밝혔다.

‘AI 안전 인증’은 도시재생안전협회가 AI 기반 안전관리 시스템과 사고 예방 활동, 위험요인 대응 능력, 지속적인 개선체계 등을 종합 평가하는 제도로 킨텍스가 이번 평가에서 AI 기반 시설·현장 안전관리와 위험요인 사전 감지·예방체계, 재난·사고 발생 시 대응체계, 다중이용시설 안전관리, 지속적인 안전관리 개선 활동



이민우(왼쪽) 킨텍스 대표이사와 도시재생안전협회 오세기 부회장.

등을 평가받았다.

현재 킨텍스는 지능형 CCTV와 사물인터넷(IoT) 스마트센서를 연계해 화재와 군중 밀집 등 위험요인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고위험 작업을 관리하는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정부 국책과제 테스트베드로도 참여해 전기차 화재감지 솔루션과 엣지(Edge) A

I 공간안전 플랫폼, 마킹 로봇 등을 실증·도입했다.

킨텍스는 앞으로 안전관리 과정에서 축적한 빅데이터와 AI를 연계해 위험 감지와 사고 대응, 재발 방지까지 이어지는 관리체계를 고도화할 계획이다.

이번 인증은 킨텍스가 지난달 발표한 ‘AI HYPER MICE HUB, KINTEX’ 비전 가운데 안전 분야에서 나온 첫 성과다. 킨텍스는 안전과 운영 효율, 고객 경험, 조직문화, 비즈니스 생태계 등 5개 영역을 중심으로 15대 AI 전환(AX) 과제를 추진하고 있다.

이날 킨텍스 중역회의실에서는 이민우 킨텍스 대표이사와 오세기 도시재생안전협회 부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인증서 수여식도 열렸다. 양측은 MICE 산업의 스마트 안전관리 적용 확대와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고광(경기)=안상기 기자 ask@9900

송도·영종·청라 잇는 ‘I♥FEsta’ 열린다

송도 12일 시작 영종·청라로 이어져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글로벌 K-컬처 브랜드 강화를 위해 12일 송도로 시작 10월 10일 영종, 10월 24일 청라로 축제를 통합한 총 3개의 에피소드로 ‘I♥FEsta’를 개최한다.

9월 12일 송도 센트럴파크에서는 클래식과 국악이 어우러진 크로스오버 공연과 ‘K-Fashion’ 특화 콘텐츠를 선보이며 10월 10일 영종 씨사이드파크 ‘K-BEAT’영종국제도시에서는 젊음과 열정이 넘치는 에너지탄 락 음악과 국악의 역동적인 크로스오버 무대가 관객들을 기다린다.

현장에는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K-Food’를 즐길 수 있는 공간도 함께 마련된다. 이어 10월 24일 청라 호수공원 ‘K-OST’축제의 파날레는 지역 대표 축제인 ‘청라 페스티벌’과 연계하여 축제의 풍성함을 더한다. 현장에서는 와인

시음 및 소믈리에 강연 등 트렌디한 와인 콘텐츠와의 페어링 프로그램이 운영되어 가을 축제의 대미를 장식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는 축제장을 찾는 방문객들이 3개 도시 축제를 유기적으로 즐길 수 있도록 ‘I♥FEsta 모바일 PASS’를 운영하여 방문객 유입 증대를 도모할 방침이며 축제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인천관광공사 누리집 및 공식 인스타그램에서 확인할 수 있다.

조인권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 직무대행은 “2026 IFEZ 글로벌 페스티벌”은 송도, 영종, 청라가 가진 각기 다른 매력을 ‘I♥FEsta’라는 하나의 브랜드 아래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반면 지역 간 차별성도 함께 보여주는 뜻깊은 시도라며, “K-컬처를 매개로 전 세계 관람객과 지역 주민이 함께 즐기는 대표 글로벌 축제로 자리매김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인천=이숙영 기자 sy1321@